

주말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열린다

남원시, 11월까지 매주 주말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전통혼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가 지역의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상설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남원시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주말에 춘향전을 재해석한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과 우리 고유의 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전통혼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544회의 공연 기록을 세운 '신관사또 부임행차'는 올해로 운영 20주년으로, 이를 기념해 올해는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볼거리를 기획해 선보일 예정이다.

사람의 광장에서 출발해 춘향과 삼거리로 거쳐 광한루원까지 이어지는 거리 퍼레이드로 포문을 연다. 이어 취타대 연주, 기생과 육방의 퍼포먼스, 어사출두 마당극 등 재치 넘치는 공연이 약 2시간 동안 펼쳐진다. 해당 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또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40분부터는 광한루원과 예루원 일대에서 '전통혼례 체험'인 신랑·신부의 신형길놀이부터 터울림, 대례의식 등 고유의 혼례 절차를 생생하게 재현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남원시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주말에 춘향전을 재해석한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과 우리 고유의 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전통혼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자는 외국인, 다문화가정, 예비부부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선착순 모집을 통해 선정, 특히 상반기 참여가 확정된 8쌍 중 3쌍은 실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어서 프로그램의 의미를 더 한다.

한편, 이번 상설 프로그램은 7~8월 하절기와 춘향제 기간(5월 2일~3일)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예술인·수요자 잇는 '익산시 문화예술인 플랫폼' 운영

예술인·단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익산시가 지역 예술인과 문화예술 수요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에 나섰다.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지역 예술인과 기관·단체·시민 등 문화예술 수요자를 잇는 '익산시 문화예술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문화예술인 플랫폼은 △예술인 데이터베이스 △예술단체 데이터베이스 △문화예술장터로 구성됐다.

예술인과 단체는 활동 이력과 분야, 주요 작



품 등을 직접 등록·관리할 수 있으며, 수요자는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문화예술 정보를 확인하고 협업이나 프로그램 의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다.

특히 '문화예술장터'는 작품과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예술인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교류와 유통을 지

원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보다 안전한 운영을 위해 플랫폼 내 직접 연락 기능은 제한하고, 작품 구매나 협업 등 구체적인 문의는 문화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익산시 문화예술인 플랫폼'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기능 고도화와 서비스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플랫폼 운영을 통해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창작·유통·향유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김제시 벽천미술관,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 협력전시 개최

김제시는 2026년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도·시군 공립미술관 협력전시의 일환으로 "그대로 피어나다" 전시를 오는 5월 31일까지 벽골제아트리빙샵소 내 벽천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전북도립미술관과 익산예술의전당 소장 작품을 중심으로, 자연의 변화 속에서 인간의 삶을 돌아보는 사유의 시간을 제안하

고자 기획됐다. 전시에는 박민경, 윤재우, 조기풍, 이보영, 류일지, 김희진 등 작가들의 작품이 소개된다.

특히 계절의 풍경과 자연의 흐름, 그리고 꽃의 이미지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삶이 서로 닮아 있음을 보여준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시간 속에서 변화하며 인간 역시 각자의 시간 속에서 성장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한편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 협력전시의 일환으로 손민아 작가의 '산책하는 집' 작품도 벽골제관광지 일원에서 오는 5월 31일까지 함께 전시중에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태와 굿패

6부 '굿패와 수녀' (9)

같이 차 마시요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가센 바람에 실린 눈덩이들이 수녀의 온몸을 매섭게 때리고 있고, 무거운 바람 때문인지 수녀는 거의 고개를 숙이고 걸고 있었다.

"수녀님!"
남준은 저도 모르게 열린 수녀에게 달려가 짊어진 바람을 잡았다.

남준은 그동안 수녀가 베푸는 호의에 반응하지 않았다. 외부 일반 사람들에게 절저히 마음의 문을 닫아걸었던 게 원인이었고 또 여러 복합적인 생각들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남준도 모르게 수녀에게 다가가고 싶은 의욕이 자라나고 있었던 모양이다.

"이리 주세요. 내가 짊어질게요."

"아, 아니…… 예요. 내가……"

남준은 바람을 뺏듯이 수녀의 어깨에서 빼서 자신의 어깨에 짊어졌다. 바람은 상당히 무거웠다.

"음에 다녀오시는 거예요?"

수녀는 미소를 지으며 예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면 늘 미소를 지었다. 남준은 다음 말을 밀로 이어야 할지 찾지 못하고 그냥 바람을 메고 수녀와 함께 걸었다.

"고마…… 워요."

수녀는 미소를 지으며 남준에게 말했다. 남준도 수녀를 보고 씨익 웃어줬다. 웃었더니 수녀에게 뭔가 모르게 쌓여 있던 것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남준은 수녀를 따라 동해원 주민들의 집에 들러 수녀가 심부름한 물건들을 배달해줬다.

"같이…… 차…… 마시요"

수녀의 요청을 남준은 미소로 답했다. 남준은 예배당에는 처음 와봤다. 공소 예배당이었으므로 작은 규모였는데, 예배당에는 다른 한국인 수녀가 한 명 더 있었다.

한국인 수녀도 남준을 반갑게 맞이해줬다. 수녀들의 거처는 남준의 방보다 좁았고 살림살이도 나온 게 없었다. 단촐하고 소박했으나 단정했고 성스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형제님도 예배당에 나오시는 게 어때요?"

한국인 수녀가 남준에게 권했다. 남준은 그렇게 하겠다고 싶게 답하지 못했다.

남준의 가족과 친인척들은 모두 죽었다. 남준은 죽은 사람들에게 빛이 있었다. 죄인이었으므로 나병도 천형으로 알고 살고 있었다.

돌아오는 일요일, 남준의 집으로 서양수녀가 찾아와 예배당에 같이 가자고 어눌한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한국말로 말했다. 이미 서로의 미소로써 친분의 끈을 이어온 사이였다.

남준은 수녀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예배당에 갔다. 낯설고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다 생각했는데 예배당에 가서 다들 남준을 환영해줬다.

한번 같이 나는 게 힘들지 두 번 세 번은 쉬웠다. 남준은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나갔고 텅으로 자주 서양수녀를 돕게 되었다.

혼자 몸이었고 비교적 나병이 중증환자들에 비해 심하지 않았으므로 일을 거를 수 있었다.

남준은 서양수녀를 만날 때마다 한국말을 가르쳐주려고 했다.

예배당에 나가 수녀와 신부의 말씀을 들으면서 차츰 남준에게 씩씩워 있던 마음의 빙이 조금씩 치우되어 갔다.

그렇게 두 해의 세월이 흘렀다.

"내 이름은 루이지예요. 믿음이 깊은 언니가 수녀가 되었는데 얼마 안 있어 교통사고로 하느님 곁으로 갔어요. 언니 이름이 루이지예요. 저는 그 이름을 그대로 쓰면서 언니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을 가기로 했어요. 어렸을 때 한국전쟁이 난 것을 봤어요. 수녀가 되어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

요. 그리고 이곳에 왔지요. 저는 저를 하느님께 모두 맡겼어요. 그래서 병에 걸린다 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다 하느님의 뜻이니까요. 그리고 남준 형제님의 병은 전염되는 게 아니예요."

어느 정도 한국말이 익숙해진 후 수녀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남준에게 말해줬다.

루이지의 설명에도 남준은 루이지가 왜 이런 협지에 와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날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증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